



Quant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8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 Quant Comment

###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AI 데이터센터 관련 산업재, 전자장비, 반도체, 기술하드웨어 업종이 글로벌 실적 상향 리드 지속. 반면 소비재는 관세 환급 효과와 업체별 경쟁력에 따라 실적 차별화 확대

**Home Depot:** 8/18 장 전, EPS 비트, 매출 소폭 미스

매출 \$431.7억(YoY +1.4%, 컨센 소폭 미스). EPS 컨센 상회. 동일점포 +1.7%(4년 만에 최고). "주택시장 frozen 상태이나 소규모 프로젝트 수요 견조"

**Target:** 8/19 장 전, 어닝 서프라이즈

동일점포 컨센 대폭 상회. 주가 3달 +20%. 디지털 판매·당일배송·마진 개선 강세. 최근 4분기 중 최강 분기

**Lowe's:** 8/19 장 전, EPS 비트, 매출 미스, 가이드스 하향

매출 \$259.6억(컨센 \$261.3억 미스). EPS \$4.40(컨센 \$4.22 비트). 동일점포 +0.2% - 홈디포와 150bp 격차(최근 최대). 연간 가이드스 하단으로 하향. 7월 경쟁사 관세 환급 공격적 가격 인하로 일시적 경쟁 심화

**Analog Devices:** - 8/19 장 전, 어닝 서프라이즈 - 커버리지 이번 주 전체 최강 +8.1%

Q3 FY2026 매출 \$3.9억(가이던스 부합). EPS 컨센 상회. 산업용·자동차용 아날로그 반도체 회복 재확인 - TI에 이어 아날로그 사이클 회복 신호 연속

**Walmart:** 8/20 장 전, 매출·EPS 비트, 가이드스 하향, 주가 -9%

매출 \$187.9억(+5.9%, 컨센 상회). EPS \$0.81(+19.1%, 컨센 \$0.74 상회). 그러나 US 동일점포 +2.6%(컨센 +3.8% 미스 - 6년 만에 최저). FY27 EPS 가이드스 \$2.80~2.87(컨센 \$2.90 하회). 관세 환급 \$2.9B이 영업이익 750bp 부풀림 - 실질 마진 약화 노출. 연료비 \$20억 추가 부담. CEO: "소비자들이 높은 연료가격으로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산업복합기업**(Boeing +4.3%, Rolls-Royce +3.1%, GE Vernova +2.2%, Hitachi +1.9%, Safran +1.1%, Siemens Energy +0.8%, Caterpillar +0.7%)

Boeing이 커버리지 내 최강. 737 생산을 정상화 + NATO 방산 예산 확대로 백로그 \$6,950억 유지. Rolls-Royce는 항공엔진 애프터마켓 수요 회복 + 핵방위 계약 확대. GE Vernova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약 추가 확보로 가스터빈 수주잔고 역대 최고 유지. Hitachi는 에너지·IT 인프라 통합 수주 급증

**전자장비·부품**(Analog Devices +8.1%, Delta Electronics +0.8%, Vertiv +0.6%, Corning +0.5%, Amphenol +0.4%)

Analog Devices가 커버리지 전종목 이번 주 최강. Q3 FY2026 EPS 서프라이즈 - 산업용 자동화·자동차 아날로그 반도체 회복이 TI에 이어 재확인. Vertiv는 데이터센터 열관리 수

주 지속 증가. Delta Electronics는 AI 전력변환 부품 수요 폭증

**반도체**(Advantest +5.2%, AMD +2.0%, Applied Materials +1.4%, Nvidia +1.4%, Infineon +1.4%, Mediatek +1.2%, Micron +1.1%, ASML +0.6%, KLA +0.4%)

Advantest가 커버리지 내 최강. Nvidia B300/GB300 테스트 물량 급증으로 수주잔고 역대 최고 경신. AMD는 MI300X 데이터센터 AI 추론 수주 지속 증가 + Q3 가이던스 상향 유지. Applied Materials는 HBM4 생산설비 투자 사이클 수혜

**기술하드웨어**(Seagate +3.2%, 삼성전자 +0.7%, 삼성우선주 +0.7%, 혼하이 +0.4%)

Seagate가 커버리지 내 최강. HBM 공급부족으로 엔터프라이즈 SSD 대비 고용량 HDD 가격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AI 콜드스토리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안정. 1달 +34.8%로 커버리지 내 기술하드웨어 누적 상향 1위. 삼성전자는 확정실적 컨퍼런스콜 후 DS 부문 Q3 가이던스 상향 반영

### 하향 업종은

**상호미디어**(텐센트 -1.5%, 알파벳 -0.8%, NetEase -0.7% | 메타 +0.2%)

텐센트가 커버리지 내 최강 하향. 중국 게임 신규 허가 지연 + AI 콘텐츠 규제 강화로 위챗 광고 수익화 성장 둔화 반영. 알파벳은 AI CAPEX 급증(\$449억/분기) 대비 클라우드 수익 회수기간 재추정으로 EPS 하향 조정. NetEase는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불확실성 지속. 메타만 +0.2%로 소폭 양수 - Advantage+ AI 광고 효율 개선이 CAPEX 부담을 일부 상쇄

**상사(도매유통)** (미쓰이 -0.8% | 이토추 +0.7%, 미쓰비시상사 +0.2%)

미쓰이 -0.8% - 에너지·금속 부문 이란 재진장 불확실성으로 거래 마진 전망 하향. 석탄 수요 감소가 자원 포트폴리오에 부담. 이토추는 비자원(소비재·IT) 비중이 높아 역방향 양수 유지

**화학**(Linde +0.2%, Air Liquide +0.2%, Shin-Etsu +0.2%)

커버리지 내 대형 화학주 모두 소폭 양수. 섹터 하향은 중국 석유화학 수요 부진 + 이란 원료 공급 불안으로 커버리지 외 다운스트림 화학사 중심으로 발생

**무선통신**(T-Mobile +0.5%, Verizon +0.1%, Comcast +0.1%)

커버리지 내 모두 소폭 양수. 섹터 하향은 커버리지 외 중소형 통신사 중심. T-Mobile은 가입자 확대 + ARPU 개선으로 업종 내 예외적 양수

**실적 추정치 상향 주요 종목**은 Analog Devices(+8.1%, 1개월 +9.3%, 데이터센터·산업용 아날로그 반도체 회복), SoftBank(+7.2%, Vision Fund의 AI 기업 평가가치 회복), Advantest(+5.2%, B300-GB300 테스트 물량 증가), Ross Stores(+5.0%, 소비 양극화 속 할인소매 수요 견조), Boeing(+4.3%, 737 생산 정상화), Seagate(+3.2%, AI 콜드스토리지 수요), Rolls-Royce(+3.1%, 항공엔진 애프터마켓), Gilead Sciences(+3.0%, HIV 치료제와 예방 임상 모멘텀), GE Vernova(+2.2%,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약), AMD(+2.0%, AI 추론 수요)

**하향 주요 종목**은 Berkshire Hathaway(-6.2%, 보험 손해를 악화), Glencore(-5.1%, 석탄 수요 둔화와 구리 제련마진 압박), Xiaomi(-4.5%, 메모리·파운드리 원가 상승), FedEx(-3.9%, 글로벌 항공화물 둔화), Tencent(-1.5%, 게임 허가과 광고 수익화 우려), Lowe's(-

1.2%, 동일점포 부진과 가이던스 하향), **Alibaba**(-1.2%, 이커머스 경쟁과 클라우드 마진 부담), **Walmart**(-1.1%, 관세 환급을 제외한 수익성 부담), **Progressive**(-1.0%, 자동차보험 손해를 상승), **Regeneron**(-0.7%, DUPIXENT 경쟁 우려)

###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는 267조원(1W -3.6%, 1M -3.8%, QoQ +16.6%). **2026E OP**는 988조원(1W +0.7%, 1M +2.1%, YoY +229%). **3Q26F OP 상향 업종**은 정유, 해운, 조선, 가전, 전 기장비. **하향 업종**은 화학, 유틸리티, 2차전지, 게임.엔터, 건설, 비철금속, 반도체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3Q26F OP)**는 삼성전기, SK, 삼성SDI, LG전자, 한화오션, SK이 노베이션, HMM 상향.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한국전력, 미래에셋증권, LG화학 하향

**3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삼성SDI, SK이노베이션, S-Oil, SK, HD현대, GS, 심텍, HMM, 코스맥스, LS, 삼성전기, 한화오션, 일진전기, 카카오페이, 팬오션, LG전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콜마, 대한전선, 두산, DB하이텍, 대덕전자, HD한국조선해양, 효성중공업, 삼성E&A, 유한양행, 카카오,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메리츠금융지주, 실리콘투, 삼성생명, SK 바이오팜, 이수페타시스, HD현대중공업, 산일전기, NH투자증권, LG이노텍, 신한지주, 우리 금융지주, 삼성물산, LS ELECTRIC, 에이피알, KB금융, 포스코인터내셔널, KT, 신세계, 기업 은행, 코웨이

**외국인**은 반도체를 선별 매수했지만 대형주를 제외한 대부분 스타일에서 매도 우위. 코스 피 1.9조원, 코스닥 3,600억원 순매도. **순매수 상위 업종**은 철강, 방산, 건설, 증권, 반도체. **순매도 상위 업종**은 통신, 가전, 기술하드웨어, 호텔·레저, 기계

**연기금**은 뚜렷한 스타일 베팅 없이 중립적인 수급을 유지. 코스피 1,400억원, 코스닥 400 억원 순매도.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정유, 비철금속, 건설, 해운, 가전. **연기금 순매 도 상위 업종**은 기술하드웨어, 증권, 유통, 전기장비, 상사

###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 8.24일(월)

미국 7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 25일(화)

미국 7월 FHFA 주택가격지수, 미국 7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 26일(수) ★★★ 금주 최대 이벤트

미국 7월 PCE-근원 PCE, 개인소득·개인소비와 미국 2분기 GDP 2차 추정치가 오전 8시 30분(ET)에 동시 발표. 물가 재상승 여부와 2분기 성장률 속보치 +1.5%의 수정 방향이 연준 경로에 영향을 줄 전망. Nvidia는 장 마감 후 FY2027 2분기 실적 발표. 매출 가이던 스 \$910억 달성 여부와 3분기 가이던스가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을 확인할 핵심

**27일(목)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개막. 올해 주제는 ‘금융혁신이 지급결제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며 29일까지 진행

**28일(금) ★★★**

워시 연준 의장 잭슨홀 기조연설. 7월 FOMC 내부 이견과 중동발 물가 압력, 장기금리 상승 이후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할 핵심 이벤트. 연설은 오전 10시(ET) 예정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는 9월 4일 미국 8월 고용보고서, 9월 11일 미국 8월 CPI, 9월 15~16일 FOMC

**Quant Comment**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73%로 9bp 상승했고 VIX는 +1.6%, SOX는 +0.02%, 달러인덱스는 98.8(-0.03%)를 기록하며 소폭 안전 선호 우위

S&P500은 4주 만에 주간 하락. 이란 MOU 만료로 인한 중동 정세 불확실성, 30년 국채 5.33%(19년 만의 최고), Walmart가 보여준 소비 부담이 위험선호를 약화. 반면 금 +5%, 비트코인 +22%는 재정과 통화가치 우려가 대체자산 수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월마트의 동일점포 +2.6%(6년 최저)는 미국 저중소득층 소비 피로의 첫 가시적 증거로, 이란발 에너지 비용이 실물 경제를 잠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

금주 최대 변수는 8월 26일 PCE·GDP·Nvidia 실적의 동시 발표. Nvidia가 2분기 매출 가이드선 \$910억을 달성하고 3분기 가이드선이 \$1,000억을 넘어설 경우 AI 인프라 사이클의 지속성이 강화될 전망. 반대로 근원 PCE가 예상보다 높으면 잭슨홀에서 워시 의장의 매�파적 메시지와 장기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국내 반도체 업종의 3분기 실적 추정치는 하향 전환했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개별 종목의 상향과 주주환원 기대는 유지. 외국인 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되기보다 실적 상향 종목과 낙폭과대 업종으로 확산될 경우 지수 반등보다 업종 순환과 종목 장세가 우세할 가능성